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1(2)(1) 쉽게 씌어진 시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저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쉽게 씌어진 시」의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전체 내용 및 구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높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A]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인생을 비극적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② ㉡: 시적 화자가 무기력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 ③ ㉢: 시적 화자가 거부하고 싶은 현실에서 무기력한 사는 모습을 나타낸다.
- ④ ㉣: 시적 화자의 성찰 결과를 상승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 시적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자 반드시 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현실적 자아로 화자가 부끄러워하는 자아의 모습을, ㉦는 부정적 현실을 인정하고 침잠하는 자아를 나타낸다.
- ② ㉥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아를, ㉦는 역사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고 고민하는 이상적 자아를 나타낸다.
- ③ ㉥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아를, ㉦는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려 했던 과거의 자아를 나타낸다.
- ④ ㉥는 자아 성찰의 과정을 완성한 자아를, ㉦는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를 나타낸다.
- ⑤ ㉥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이상적 자아를, ㉦는 현실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자아를 나타낸다.

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자아의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② 그리움을 극복하지 못해 슬픔에 빠져들고 있다.
- ③ 부정적 미래에 대한 절망적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자아 성찰을 통해 부끄러운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 ⑤ 현실적 여건에 적합한 타협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운동주는 일제 강점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뇌와 아픔을 노래한 시인이다. 그를 일제 말기라는 문학적 공백기에 민족의 의지와 양심을 지킨 시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의 투사와 양심에 따른 부끄러움의 인식이 그의 시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 ① ‘밤’은 화자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촉발하고 있어.
- ② ‘육첩방은 남의 나라’를 통해 시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③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는 화자에게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군.
- ④ ‘부끄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기 성찰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 ⑤ ‘아침을 기다리는’ 행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시대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군.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시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쉽게 씌어진 시’는 운동주가 도쿄 릿쿄 대학에 다니던 시기에 쓴 작품으로서, 시인으로서의 ‘나’가 ‘어둠’으로 상징되는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한 것이다.

- 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식민지 조선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공간에 와 있음을 자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 ③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시인으로서 살아온 ‘나’의 모습이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 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어둠’으로 상징되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화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신유형

「쉽게 씌어진 시」의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작가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시를 감상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으므로, 시인과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澗)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6.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암울한 시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시인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한다.
- ②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 현실과 타협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 ④ ㉣: 행의 위치를 바꾸어 현실을 재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가 대비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8연부터 시상이 전환되고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 ③ 유사한 통사구조를 매 연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낯선 생활공간은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다.
- ⑤ 의문의 형식을 통해 무기력한 삶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윤동주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와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 자아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는 고뇌를 담은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그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인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서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상 추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시에 반영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숙명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가는 모습은 현실적 자아를 표현한 것이다.
- ②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는 고뇌하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부끄러운 일이다.’는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 ④ ‘최후의 나’는 절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는 현실적 자아의 숙명을 표현한 것이다.

- ① ‘육첩방’, ‘대학 노트’, ‘강의 들으러 간다’ 등의 시어나 시구를 통해 일본 유학 중인 시적 화자의 상황이 드러난다.
- ② ‘밤비’는 전반적으로 우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특히 ‘밤’이라는 시간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당대 시대적 현실을 상징한다.
- ③ ‘시인’을 ‘슬픈 천명’으로 여기는 화자의 인식에는, 시인으로서의 현재 자신의 삶이 암울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하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애가 담겨 있다.
- ④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침전(沈澱)’하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화자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조 섞인 자문(自問)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강조해 드러낸다.
- ⑤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을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현시대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윤동주 시인은 1917년 북간도에서 태어나 용정, 평양, 서울, 도쿄, 교토 등 여러 곳의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를 많이 썼고, 일본 유학 중 체포되어 1945년 2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남긴 시는 해방 직후 간행된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 **홀로 침전(沈澣)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0.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윤동주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하며 쓴 시이다. 시에서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고 두 자아는 화해를 이루게 된다.

- ① ㉠: 화자가 처한 암울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② ㉡: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억눌러야 하는 답답한 상황 인식이 드러난다.
- ③ ㉢: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드러낸다.
- ④ ㉣: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모습에 대해 화자 스스로 갖게 된 정서이다.
- ⑤ ㉤: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화해를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화자의 자아 성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활용하여 차분하고 담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대비되는 이미지의 시어를 제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공간의 모습을 제시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구절을 변용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시에서 나타나는 자아를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로 이분화시켜 이해할 수 있다.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에도 두 개의 자아가 갈등을 일으키다가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가 통합되면서 내면적 삶이 완성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 ① ‘슬픈 천명’에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침전하는 것일까’에는 현실적 자아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난다.
- ③ 현실적 자아를 ‘부끄러운’ 것으로 느끼는 부분에서 두 자아가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최후의 나’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지닌 내면적 자아를 의미한다.
- ⑤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통합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3.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운동주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지식인으로 연희 전문학교 재학 당시 한국 문학 동인지를 간행하고 문학 품평회를 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고,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조국의 광복을 앞두고 옥사하였다. 운동주는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뇌했던 시인이었다. 운동주의 시에는 '부끄러움'의 정서가 주를 이룬다.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 현실에 저항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을 지닌 지식인이면서도, 소명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채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이다. 그의 시에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과 대면하여 치열한 내적 갈등을 통해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 ① ㉠: 당시의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으로 일본에서 유학했던 시인의 삶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③ ㉢: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으로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 자신이 생각하는 지식인의 소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겠군.
- ⑤ ㉤: 자신과 대면하여 부끄러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군.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를 통해 공간적 배경이 타국임을 알 수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은 시의 주제를 드러내기에 적당한 시간이다.
- ③ 부정적 시어와 긍정적 시어를 대비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가 성찰하는 내용을 통해서 독자에게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 ⑤ 의도적으로 특정 연의 1행과 2행을 바꾸어 다시 씌으로써 시적 화자가 현실을 재인식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식민지 시대의 정신적 고통을 노래하던 운동주는 1941년 릿교 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하지만 군국주의 성향이 강한 릿교 대학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한 학기 만에 도시샤 대학에 편입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을 떠나와 자신만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을 자책하며 우울해 하던 운동주는 요시찰인으로 주목을 받던 연희전문학교 동창 송몽규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1943년 체포되어 이듬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함으로써 짧은 삶을 마감한다.

- ① 1연과 8연의 '밤비', '육첩방은 남의 나라'로 나타난 시공간적 배경은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을 의미해.
- ②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슬픈 천명'이라는 단어로 드러내는데 암담한 현실에서도 시인으로서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느껴져.
- ③ 3연과 4연에서 '학비 봉투를 받아',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말한 것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화자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의미해.
- ④ 7연에서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

러운 일이다.’는 암울한 현실과 타협하며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자기 성찰의 결과라 할 수 있지.

- ⑤ 9연에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등불’을 밝히는 행위로 드러낸 거야. 그래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데 이걸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㉞: '침전'은 화자가 현실에 무력하게 잠겨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이다.

① ㉠: '슬픈 천명'은 시인의 고뇌와 슬픔이 운명임을 나타낸다.

② ㉡: '학비 봉투'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희생이다.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무기력함의 이유가 될 수 있다.

③ ㉢: '늙은 교수의 강의'는 암담한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고리타분하고 무의미하기에 화자는 거부하고 싶어한다.

⑤ ㉤: '시대처럼 올 아침'은 화자가 기다리는 상황이다. 아침이 오는 것이 당연하듯이 화자가 기다리는 상황도 반드시 찾아올 것을 의미한다.

### 2. 정답 ②

㉞는 침잠하는 이미지로 표현된 무기력한 자아를, ㉞는 역사와 민족의 현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아를 나타낸다.

① ㉞는 부정적 현실에서 침잠하는 자아이다. ㉞는 시대의 아침을 기다리며 현실을 자각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자아이다.

③ ㉞는 부정적 현실에 사는 부끄러운 자아이다. ㉞는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려 했던 과거의 자아이다.

④ ㉞는 자아 성찰을 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아이다. ㉞는 자아의 화해를 이루려는 이상적인 자아이다.

⑤ ㉞는 자신의 삶을 반성한 이상적 자아이나 ㉞는 무기력하게 사는 현실적 자아이다.

### 3. 정답 ①

㉞ 이상적 자아와 ㉞ 현실적 자아의 화해의 행위가 '악수'이다.

② '악수'는 두 자아의 화해를 의미한다. 화자가 그리움을 극복하지 못해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③ '악수'는 절망적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④ '악수'는 부끄러운 경험이 아니다.

⑤ '악수'는 타협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정답 ⑤

'아침을 기다리는' 행위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화자는 어둠을 내몰고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① '밤'은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현실로서 부끄러움을 촉발한다.

② '육첩방은 남의 나라'는 주권을 빼앗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③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는 부모의 희생과 지원을 받는 자신을 자책하게 한다.

④ '부끄러운 일'은 시인으로서 사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낸다.

### 5. 정답 ②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며 시대 현실과 거리가 먼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

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식민지 조선의 백성으로 억압된 현실을 느끼는 것을 드러낸다.

③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기력하게 사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다.

④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시를 쉽게 쓰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을 의미한다.

### 6. 정답 ②

㉞: 화자가 현실에 안주하며 무기력하게 침잠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① ㉠: 시대 현실의 암울함과 이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한다.

③ ㉢: 화자는 시를 쉽게 쓰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성찰한다.

④ ㉤: 1연과 달리 행을 바꿈으로써 '육첩방'이라는 공간을 재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⑤ ㉤: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하여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7. [정답] ③

1연과 8연이 반복되고 있으나 매 연마다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 ① ‘등불’과 ‘어둠’은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로 대비된다.
- ② 8연은 1연의 두 행을 바꾸어 서술하였다. 이는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 ④ ‘육첩방’이라는 낯선 공간은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⑤ ‘침전하는 것일까?’와 같은 의문 형식은 화자의 무력감을 드러낸다.

8. [정답] 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는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를 위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다.

- 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모습은 죽은 지식을 배우며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무력한 모습이다.
- ② 침전하는 이미지는 부정적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현재의 암담한 시대 상황과는 괴리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 ④ ‘최후의 나’는 절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다.

9. [정답] ⑤

화자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므로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육첩방’, ‘대학 노트’, ‘강의 들으러 간다’ 등의 시구들은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
- ② ‘밤’은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이며 ‘밤비’는 전반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화자는 현실 문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시’를 써서 저항하는 소극적인 저항밖에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
- ④ 화자는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해 자괴감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강조한다.

10. [정답] ②

㉠: 시인으로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보여 준다.

- ① ㉡: 식민지 조선 백성으로서의 억압적 현실과 일본 유학생인 화자의 심리적 소외감을 의미한다.
- ③ ㉢: 화자가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상태로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 ④ ㉣: 암울한 현실을 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⑤ ㉤: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를 의미하며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11. [정답]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변화하지 않는다. 화자는 동일한 공간(육첩방)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 ① 시 쓰기라는 행위는 자아 성찰에 해당한다.
- ② 화자의 내면적 갈등과 고뇌를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다.
- ③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모는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 소극적이었던 화자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⑤ 1연의 2행을 8연에서는 변용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12. [정답] ①

‘슬픈 천명’은 시인으로서의 숙명을 의미한다.

- ② ‘침전하는 것일까’는 현실적 자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 ③ 화자는 현실적 자아를 부끄럽게 여긴다. 이로 인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다.
- ④ ‘최후의 나’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 ⑤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화해하고 통합되는 순간을 나타낸다.

13. [정답] ③

㉠: 현실에 안주하는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낸다.

- ① ㉡: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상징한다.
- ② ㉢: 남의 나라인 일본에서 유학 중임을 나타낸다.
- ④ ㉣: 자신이 생각하는 지식인의 역할을 실천하지 못한 데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나타낸다.

⑤ 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14. 정답 ④

화자는 자기 성찰에 초점을 맞춘다.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현실 참여를 요구하거나 독려하지는 않는다.

- ① '육첩방'은 공간적 배경이 일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 ② 밤비가 내리는 어두운 시간적 배경은 식민지 현실의 암울함과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
- ③ 부정적 시어('밤비', '침전')와 긍정적 시어('등불', '아침')를 대비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 ⑤ 1연을 8연에서 변주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드러낸다.

15. 정답 ③

3연과 4연에서 '학비 봉투'와 '강의'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① 1연과 8연의 시구는 일본 유학 중인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
- ② 2연에서 화자는 시인으로서 시를 써야 하는 운명에 대해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 ④ 7연에서 '부끄러운 일이다.'는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한 후 느끼는 정서를 의미한다.
- ⑤ 9연에서 '등불'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아침'은 조국의 광복을 상징한다.